

S#1. 회사

회사 사무실 전경. 직원과 남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. 진동 울리는 남자의 핸드폰. 발신자는 '아버지'.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전화를 받는 남자.

남자 : (신경질적으로) 왜요.

아버지 : 밥 먹었냐.

남자는 대화를 하면서도 컴퓨터 타자를 두들긴다.

남자 : (한숨) 지금 바빠요. 끊어요.

아버지 : 아니 밥 먹었냐고.

남자는 통명스럽게 통화를 끊어버린다.

S#2. 스마트팜

통화 끊긴 폰을 바라보는 아버지. 태블릿PC로 농장을 살피던 어머니가 이를 바라본다.

아버지 : (화를 삭히며) 이 놈 이거...

어머니 : 하이고~ 스마트 팜하는 양반이 왜 자식 농사는 스마트 하지 못할까!

아버지 : 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! 아니, 글썄? 밥 먹었냐고 이제 묻는데 이놈이...!

어머니는 태블릿 PC를 들고 아버지에게 다가와 위플 홈페이지를 열어 보여준다.

어머니 : 밥 먹었냐 백 번 묻지 말고, 제대로 한 번 밥 먹여줘야지요.

아버지는 태블릿 PC를 넘기며 위플의 상품을 유심히 살핀다.

S#3. 아파트 계단, 현관 앞

남자가 계단을 올라오다가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발견한다.

S#4. 부엌

택배를 열어보는 남자. 잠시 생각에 잠긴다.

-C.U 택배 내용물은 식자재.

S#5. 스마트팜

작업 중인 아버지와 어머니. 부스럭 소리에 뒤를 보니 남자가 가방을 메고, 한 손에는 선물세트를 들고 작업장으로 들어온다. 이내 주뻗대는 남자와 이를 멀뻗히 보는 아버지. 어머니가 아버지의 등짝을 가볍게 때린다. 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밀려 나간다.

어머니는 그대로 아들에게 가 손목을 잡고 이끌어 들어오게 한다.

남자 : (사이) ...식사하셨어요?
아버지 : (더듬) 응응? 아니. 그.
어머니 : (웃으며) 밥 먹자!

S#6. 스마트 팜 -저녁-

마루 위로 아버지와 남자가 식탁을 옮기고 있다. 어머니가 그 위로 찌개를 올려 놓고 식사 준비를 마친다.

카메라 Tilt Up 하면서 FIN